

2009년도 일본의 경제분야 베스트셀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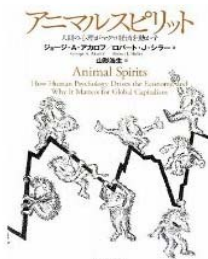
일본의 경제/경영학자 142명이 2009년도에 선정한 경제 분야의 베스트셀러에 대해 주간 다이아몬드가 특집으로 다루었다. 어떤 서적들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는지 살펴본다.

□ 2009년도 베스트셀러의 특징

- 시장원리주의에 대한 회의감, 심리학적 접근법으로 경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행동경제학, 역사 및 기본서의 3가지로 분류됨
- * 이 경향에 대해 일본 학자들은 미국적 시장주의가 붕괴된 것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과 불투명적 세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

□ 베스트셀러

1. 애니멀 스피리츠 - 2,200엔 (조지 애커로프, 로버트실러, 東洋經濟新報社)



인간이 갖는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은 경제적 동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, 거시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책으로 국내에는 “야성적 충동”으로 번역

2. 전후 세계경제사 - 940엔 (戦後世界經濟史, 이노키 다케노리, 中公新書)



제2차대전 후부터 20세기 말까지의 세계경제의 움직임과 변화를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각에서 재검토, 경제학에 역사적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저작

3. 블랙 스완 - 각 1,800엔 (나심 리컬러스, 다이아몬드社)



불확실한 경제현상을 ‘확실성’ 이라는 허강으로 감춰왔던 금융자본주의에 대해 ‘흑조’ 라는 단어로 냉정하게 평가

4. 지금이야말로 케인즈와 슈페터에 배우라 - 1,800엔

(いまこそケインズとシュンペーターに学べ, 오시카와 히로시, 다이아몬드社)



자본주의의 핵심 개념인 ‘수요창출형 이노베이션’ 을 도입하여 2명의 경제학자가 외친 경제학을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작품

5.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- 1,700엔

(資本主義はなぜ自壊したのか, 니카타니 이와오, 集英社)



이미 조정할 수 없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격차사회, 사회연결망의 해체, 환경파괴의 주원인이라고 비판하는 작품

6. 이노베이션의 신시대 - 2,000엔

(イノベーションの新時代, C.K.ブラハラードほか著, 日本経済新聞出版社)



조직, 업무과정, 인재, IT에 초점을 맞춰 일본기업이 ‘임기응변의 변혁’, ‘효율성과 유연성의 양립’ 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작품

7. 일본산업사회의 ‘신화’ - 1,800엔

(日本産業社会の「神話」, 小池和男著, 日本経済新聞出版社)



일본기업이 최근에 단기적 평가 아래 직원간의 급여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나 진정한 경쟁력을 가진 인재 육성은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작품

8. 코카콜라의 맛이 나라마다 달라야 하는가 - 1,905엔

(コークの味は国ごとに違うべきか, パンカジ・ゲマワット著, 文藝春秋)



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‘우위적 전략’ 보다 각국의 문화나 제도를 감안한 ‘지역적 전략’ 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품

9. 실천 행동경제학 - 2,200엔

(実践行動経済学, リチャード・セイラーほか著, 日経BP社)



최근에 학문적 유행을 타고 있는 행동경제학의 이론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교과서적 서적

10. 왜 GM은 전략했는가 - 2,000엔

(なぜGMは転落したのか, ロジャー・ローウェンスタイン著, 日本経済新聞出版社)



GM의 경영위기의 근원이 사원에 거액을 지불했던 퇴직연금과 건강보험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작품

<참고 문헌>

주간 다이아몬드 (2009.12.19)